#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관련 6.26 보도자료 스크랩

2024.7.16.(화)

| 번호 | 구분 | 매체명 | 제목 | 비고 |
|---|---|---|---|---|
| 1 | 신문 | 경북매일 | 중국 등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서 새마을 배워 | |
| 2 | 인터넷 | 뉴시스 | 중국·몽골·러시아 고위공무원들, 영남대서 새마을학 연수 | |
| 3 | 인터넷 | 노컷뉴스 | 중·러·몽골 공무원 새마을 연수…"발전 전략의 통찰 얻어 | |
| 4 | 인터넷 | 아주경제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 | |
| 5 | 인터넷 | 에너지경제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서 새마을운동 연수 | |
| 6 | 인터넷 | 서울경제TV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서 새마을운동 배워 | |
| 7 | 인터넷 | 아시아경제 | “새마을 배우러 영남대 왔어요”… 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 15명 연수 | |
| 8 | 인터넷 | 뉴스프리존 |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들, 영남대서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참가 | |
| 9 | 인터넷 | 교수신문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 | |
| 10 | 인터넷 | 베라타스알파 | 영남대 'NEAR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진행 | |

경북매일



# 중국 등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서 새마을 배워

심한식 기자 승인 2024.07.16 14:56 9면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듣고 있다. /영남대 제공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15명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웠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5일까지 영남대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여 참가 공무원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 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전통시장 방문과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쳉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IS 지방 > 대구/경북

# 중국·몽골·러시아 고위공무원들, 영남대서 새마을학 연수

등록 2024.07.16 10:29:01

중국 및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를 직접 찾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박준 기자 = 중국 및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를 직접 찾았다.

16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영남대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

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여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최 총장은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컷뉴스

# 중·러·몽골 공무원 새마을 연수…"발전 전략의 통찰 얻어"

2024-07-16 11:10 대구CBS 이재기 기자 |

**핵심요약**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
'NEAR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몽골, 러시아 공무원 참가
3개국 공무원 15명 영남대서 새마을 운동 체험
최외출 총장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특강

최외출 영남대 총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대 제공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영남대를 찾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 7월 5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영남대에 머물면서 새마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마을학에 대해 배웠다.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NEAR=동북아 자치단체연합)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동안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 한국 영남대를 방문한 국가들은 주로 한국 코이카로부터 대외원조를 집행받던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국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NEAR측의 요청이 있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 국가들의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 모습. 이재기 기자

글로벌 새마을학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 총장은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등을 강조하며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프로그램 참가 공직자들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방문,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가졌다.

몽골의 당증 첸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각국 공무원들의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178455**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서 새마을운동 연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6 11:01

▲동북아지역(중국 몽골 러시아) 공무원들이 새마을학의 본고장인 영남대학교를 찾았다. 제공=영남대

'NEAR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몽골, 러시아 공무원 참가

3개국 14개 지자체 공무원 15명 영남대서 새마을운동 배워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를 직접 찾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학교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여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쳉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손중모 (jmson220@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서 새마을운동 배워

전국 입력 2024-07-16 10:20:43 수정 2024-07-16 10:21:22 김정희 기자 0개

**'NEAR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몽골, 러시아 공무원 참가**

**최외출 영남대 총장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주제 특별강의**

동북아지역(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들이 새마을학의 본고장인 영남대학교를 찾았다. [사진=영남대]

[경산=김정희기자]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를 직접 찾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학교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여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쳉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곡동: 미분양 에코 하우스가 거의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에코 하우스 | 검색 광고 |

지금 검색
**[이슈플러스] 4대 금융지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시즌…이슈는?**

**혁신적인 접이식 침대로 아파트 공간 활용 극대화**
Ask-Albert |

지금 검색
**SKT, 美 AI 데이터센터 기업에 2억달러 투자**

**소형 공간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접이식 침대**
접이식 침대 | 검색광고 |

지금 검색
**"내수 존재감 키운다"…쉐보레, '콜로라도' 출시**

# "새마을 배우러 영남대 왔어요"…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 15명 연수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입력 2024.07.16 11:24 수정 2024.07.16 11:24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를 직접 찾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학교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을 배우기위해 영남대를 찾은 몽골, 중국, 러시아의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첸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됐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들, 영남대서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참가

박종률 기자 승인 2024.07.16 11:12

[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를 직접 찾았다.

새마을학의 본고장인 영남대를 찾은 동북아지역(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영남대)

16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NEAR는 지난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듣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해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또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참가한 당증 첸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됐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북아 3개국 공무원들, "영남대에 새마을 배우러 왔어요!"

방완재 | 승인 2024.07.16 11:09

'NEAR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몽골, 러시아 공무원 참가
3개국 14개 지자체 공무원 15명 영남대서 새마을운동 배워
최외출 영남대 총장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주제 특별강의

동북아지역(중국·몽골·러시아) 공무원들이 새마을학의 본고장인 영남대학교를 찾았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학을 체계화하고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를 직접 찾았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학교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여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첸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학교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완재**

인쇄

VERITAS$^{\alpha}$



# 영남대 'NEAR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진행

박소현 기자 승인 2024.07.16 18:36

[베리타스알파=박소현 기자] 영남대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영남대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 간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NEAR 회원단체 공무원 15명(중국 3명, 몽골 9명, 러시아 3명)이 참가했다. NEAR는 1996년 9월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 몽골, 중국 등 6개국에서 81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NEAR 회원단체 공무원으로 각국 광역 지자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과 비전을 공유해 참가 공무원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새마을 국제개발 공유 사례 중심)'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기본정신 ▲지역화폐와 공공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한국의 신도시 설계 사례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전통시장 방문, 경복궁/북촌 투어, 프로야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험 일정도 소화했다.

몽골에서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한 당증 첸드아요쉬(Danzan Tsend-Ayush)씨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영남대와 NEA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됐으며, 한국의 발전 역사와 전략, 효율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영남대를 방문한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 오히려 감동받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을 체계화해 학문화한 영남대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국 공무원들의 새마을학에 대한 연수 성과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3개국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남대에서 '2024 NEAR 회원단체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사진=영남대 제공

**박소현 기자** gummming@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